

특별기획 프로그램

문화기획·자영경영
박카스
에프

• 10월은 문화의 달 • 10월 20일은 문화의 날
제 15회 마로니에 전국여성백일장
• 일시 1997. 10. 22 (수) • 주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협찬: 경이계약 水石文化財團

참가한 생활을 위해
하노리



문예진흥원 30년과 문화예술 - 문학편

- 1 문예진흥원 개원 30주년, 문학부문 지원 현황
- 2 문예진흥원 30년간 문화예술 어떻게 달라졌나 - 문학편

2003년은 문예진흥원이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기획은 출범 이후 30년간에 걸쳐 문예진흥원이 지원한 문화예술을 분야별로 나누어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안으로는 문예진흥원의 30년 변화를 살펴보고, 밖으로는 문화예술계 활동 전반에 걸친 30년간의 변화와 발전된 모습을 분야별로 나타내 보고자 마련하였다.

8월호 미술분야를 시작으로 양악·무용·국악을 게재하였고 이번 12월호에 문학분야를 거쳐 2004년 1월호에 연극을 다루는 것으로 이 기획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특별기획 프로그램 ①은 1973년 첫 출범 이후 20년간을 정리, 1993년 발간한 『문예진흥원 20년사』와 함께 본원이 매년 발간하는 해당 연도 문화예술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를 종합 평가하고 분석한 자료집 『문예진흥원사업 종합심사평가보고서』(1993~2002년)를 참고로 집필하였다.

특별기획 프로그램 ②에서는 30년간 우리 문화예술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문예진흥원 사업의 일환으로 출간된 『문예연감』의 자료 분석을 통해 30년간 우리 문화예술의 변화된 양상을 살펴보았다.

문예진흥원 개원 30주년, 문학부문 지원 현황

글_ 김진수 문학평론가·계간문학관 주간

문예진흥원 30년 문학부문 지원사업 개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문학분야 지원사업은 개원 이후 30년 동안 가장 집중적인 재원을 투여한 주력 사업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분야 지원사업의 배경에는, 한편으로는 문학이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을 이끄는 주된 정신적 원동력이라는 인식이 밑받침되어 있었다는 것을 뜻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문학이 이러한 정신적 원동력으로 우리 사회에 이바지해 달라는 일종의 요구나 기대를 담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겠다. 그 결과 30년이라는, 결코 짧다고는 할 수 없을 지난 한 세대의 기간 동안 문예진흥원은 문학분야에 대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펼쳐왔으며, 또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여타 문화예술 장르의 지원사업이 갖는 목적이나 취지도 마찬가지로이겠지만, 문예진흥원의 문학분야 지원사업 역시 문학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와 향유를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원리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근원적인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순수예술의 생산과 소비를 자본주의적 상품시장의 논리에만 맡겨둘 경우 문학과 예술의 자율성의 훼손은 눈앞의 불을 보듯 뻔할 것이

다. 그리고 문학과 예술의 자율성의 훼손은 우리 사회의 사상적·문화적 기틀을 그 근본으로부터 허무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문예진흥원의 문학분야 지원사업은 문학을 상품시장의 논리로부터 방어하면서 문학이 그 자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문학 창작의 기반을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그 유통과 소비의 환경을 보다 건전하게 조성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와 목적을 두고 있다 할 것이다.

문예진흥원의 문학분야 지원사업은 개원 이듬해인 1974년 ‘문학단체활동 지원’과 ‘문예지원고료 지원’을 필두로 하여 1975년에는 ‘문인창작집발간 지원’ 등으로 이어져 왔다. 이 중 ‘문예지원고료 지원’은 1989년까지 지속되다가 1990년에 들어 ‘문학작품창작 지원’으로 개편되어 추진되었으나 1992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문학단체활동 지원’과 ‘문인창작집발간 지원’은 2003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문학분야 지원사업들 중 최장기 사업들로 꼽힌다. 이외에도 1979년부터 1999년까지 20년 넘게 장기적으로 추진되었던 ‘동인지발간 지원’ 등도 기억할 만한 사업일 것이다.

문예진흥원의 문학분야 지원사업의 세부 항목은 크게 보아 연 단위의 지속적인 장기 지원사업과 그때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학 관련 단체의 사업이나 계기적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시 지원사업으로 나뉠 수 있다. 가령 1996년 '문학의 해' 행사 지원 같은 너무나 다양한 수시 지원사업의 경우를 제외하기로 한다면, 2002년 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속적인 지원사업으로는 문학단체활동 지원, 문인창작집발간 지원, 신진문학가 지원, 우수문학작품보급 지원, 통일문학전집발간 지원, 어문단체활동 지원 및 기타 지원사업(가령 마로니에 전국여성백일장 등)이 있다. 본고는 문예진흥원 개원 30주년을 맞아 이 같은 지원사업들을 포함하여, 그 동안 추진되었던 문학분야의 각종 지원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현황을 작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별 지원 현황 분석

■ 문학단체활동 지원

문예진흥원 개원 이듬해인 1974년부터 실시되어 2002년 말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문학분야의 최장기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국 문학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문학 인구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지역별·장르별 문학단체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순수문학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독자와 대중들에게 보다 가까이에서 문학을 접하고 호흡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지역별이나 장르별로 균형 있는 지원을 함으로써 문학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함이라고 하겠다.

각종 문학단체들이 개최하는 행사의 범위를 대별한다면 시낭송회, 백일장, 문학의 밤 및 독자와의 만남,

각종 문예지 발간, 문학 세미나, 심포지엄, 문학강연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문예진흥원이 주로 지원하는 행사는 문학 세미나와 심포지엄, 연간집 발간, 시낭송회, 백일장 등이다. 문학 세미나와 심포지엄은 문학단체 행사 중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매해 정기적으로 해당 장르의 현안을 주제로 발제와 질의 토론을 통한 연구발표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시낭송회와 백일장의 지원은 문학이 대중과 함께 호흡하기 위한 중요한 소통의 장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외에도 한국문인협회가 발간하는 『월간문학』이나 한국시인협회의 시전문지 『현대시』와 연간 시집 『시와 시론』 등의 연간집 간행에도 지원한다(〈표 1〉 참조).

■ 문인창작집발간 지원

'문학단체활동 지원' 과 더불어 문예진흥원의 문학분야 지원사업에서 가장 오래되고 지속적인 것이다. 1975년부터 실시된 이 지원사업은 시장성이 약한 순수문학 작품집의 발간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문인들의 창작의욕의 고취와 출판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자격 제한 없이 모든 문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편수의 미발간 작품 원고의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정하는 이 사업의 지원분야는 시, 소설, 희곡, 평론, 아동문학을 망라한 문학의 전 분야이다.

이 지원사업이 갓 시행된 1975년에는 시집과 산문집의 발간비 차이를 고려하여 지원액도 차등을 두어 권당 각각 10만원과 30만원을 지원하던 것이 이후 몇 차례의 인상을 거쳐 2002년에는 각각 500만원과 800만원을 지원했다. 1993년에 간행된 「문예진흥원 20년사」의 자료

〈표 1〉 문학단체활동 지원 현황

(단위 : 만원)

연도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지원건수	6	4	3	3	2	4	9	9	11	15	27	29	29	21	29
지원액	1,571	463	528	403	498	772	1,160	1,184	1,450	1,450	3,720	4,040	2,120	2,060	2,360
연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지원건수	27	31	28	25	27	30	28	27	27	24	25	25	30	85	640
지원액	2,160	6,960	6,570	6,970	6,970	7,800	7,950	9,800	15,512	14,900	16,200	21,000	22,500	60,100	229,173

〈표 2〉 문인창작집발간 지원 현황

(단위 : 만원)

연도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지원건수	28	54	15	23	17	27	31	40	0	14	8	10	10	18	33
지원액	640	1,140	460	700	690	1,030	1,170	1,640	0	700	400	500	500	900	1,790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지원건수	46	51	19	20	30	38	29	60	62	60	55	58	53	909	
지원액	3,220	5,100	1,900	2,205	4,680	5,700	9,600	18,500	19,490	19,745	19,300	20,800	18,030	160,530	

〈표 3〉 동인지발간 지원 현황

(단위 : 만원)

연도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동인지수	14	19	39	40	45	43	49	47	49	96	100
지원액	420	950	1,950	2,000	2,250	2,150	2,450	2,350	2,450	4,800	7,000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동인지수	145	148	96	100	100	95	100	98	98	45	1566
지원액	10,150	10,360	6,720	4,830	10,000	9,500	10,000	12,720	14,700	4,500	122,250

에 의하면, 1975년부터 1992년까지 18년간 이 사업의 총 수혜 인원은 444명이고 그 지원액은 총 2억 2,480만원이었다. 이후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최근 10년간의 지원액수는 그 이전 연도의 총 합계를 무려 다섯 배 이상 넘어서고 있다. 물가상승분을 고려했다는 뜻이 될 것이다. 시행 연도부터 지난해까지의 지원 건수와 액수를 모두 합산하면 총 909건, 16억 530만원에 달한다(〈표 2〉 참조).

■ 동인지발간 지원

문학 동인지 활동은 한국 현대문학의 전개에 있어서 그 출발 단계부터 중요한 하나의 동력으로 작용해 왔다. 당대의 정치·경제, 사회·문화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촉수 역할을 하는 문학 동인지는 정기적인 잡지의 형식으로 발간되는 문예지와 더불어 문인들이 작품활동을 하는 중요한 매체의 역할을 한다. 이 같은 문학 동인지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히 지역문학의 창작 활성화를 위해서 197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동인지발간 지원사업이다. 서울에 편중되어 있는 문예지들로 인하여 작품의 발표 지면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지방 문인들에게 더 많은 작품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학 향수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는 지역간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1979년부터 1992년까지의 수혜 대상 동인지 거주지의 서울과 지방의 비율이 193개(20.8%) 대 737개(79.2%)였다는 것만 보아도 이러한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4집(4년) 이상 발간되었거나 활동 실적이 있는 동인지가 그 지원 대상으로, 지원 횟수는 연속적으로 4회를 받았을 경우 익년도의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그리고 이때 제외된 동인지는 그 이듬해에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지원사업은 그 지원 건수와 액수에서 해마다 큰 편차를 보이다가 1998년에는 98건, 1억 4,700만원으로 정점을 이루었으나 이듬해 1999년에는 그 지원 건수와 지원액이 3분의 1 정도로 축소되었다가 2000년에 들어서는 결국 폐지되기에 이르렀다(〈표 3〉참조).

■ 문예지원고료 지원

1974년부터 1989년까지 진행되었던 사업으로 문인들의 주된 수입원인 원고료가 사회의 여타 분야의 소득 수준에 비해 열악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 전국의 문인들을 대상으로 하되, 문예지를 통하여 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이 사업이 시행된 1974년 당시 문인들은 시 1편당 2천원에서 5천원을 받았고, 산문은 원고지 1



〈표 4〉 문예지원고료 지원 실적

(단위: 만원)

연도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지원건수	11	8	9	7	6	7	7	7	9
지원액	2,955	3,120	3,580	8,396	9,336	10,168	10,952	10,930	12,872
연도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계	
지원건수	9	10	12	14	14	15	21	166	
지원액	18,692	21,864	42,228	52,091	63,438	59,994	53,719	384,374	

매당 2백원에서 5백원을 받았다. 따라서 문인들은 고료 만으로는 전혀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1973년 당시 1,400여 명의 문인들 중에서 창작활동만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었던 전업문인은 겨우 10여 명에 불과했다. 게다가 당시 작품 발표의 매체인 문예지는 월간지, 계간지를 모두 합해 10여 종이 넘지 않았으며, 잡지사 자체도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문인들의 생활고는 더욱 가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애초에는 『문학사상』 『현대문학』 『한국문학』 『월간문학』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다가 각계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어 1974년부터는 지원 대상 문예지를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현대시학』 등 11개지로 확대하여 월간지에는 월 10만원씩을, 계간지에는 매호 15만원씩을 지원하였다. 이로 인해 잡지사는 종전의 원고료에 비해 50~70% 가량 인상된 고료를 문인들에게 지급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 사업은 문예진흥원의 최저고료실시제와 더불어 많은 문인들에게 획기적인 사업이라는 평을 얻으며 뿌리를 내리는 데 성공하게 되었다. 이후 지원 대상 문예지나 지원금의 액수에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1985년에는 지원금을 그 지난해의 두 배 가량으로 대폭 증액하기도 했다. 원고료 지원사업 마지막 해였던 1989년에는 총 21개 잡지에 5억 3,719만원을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문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었던 이 사업은, 그러나 해가 계속되면서 문예지들의 기금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자립 기반이 허약해지는 문제점을 낳기도 했다. 그래서 가령, 문인들에게 원고료로 고스란히 돌아가야 할 지원금이 해당 잡지의 발간비로

전용되는 등 애초 이 지원사업의 목적에서 벗어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1988년 정기간행물 잡지, 출판 등록이 개방화되면서 그 동안 억제되어 왔던 신규 등록 문예지들이 대폭 생겨남으로써 지원 문예지의 형평성의 문제와 일부 지역 문예지의 소외 및 편중 게재 등의 문제가 생겨났다. 결국 1989년 이후 이 지원사업이 중단되면서, 그 대안으로 1990년부터는 문인들에게 창작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문학작품창작 지원' 사업으로 확대 개편되었다(〈표 4〉 참조).

■ 문학작품창작 지원

문예진흥원 개원 이듬해인 1974년부터 1989년까지 시행되었던 '문예지원고료 지원' 사업이 확대 개편됨으로써 1990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문인들의 창작활동을 뒷받침하여 우리 문학의 진흥을 도모하고 정성된 양질의 문학작품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이 사업은 우수 문학작품을 전국적으로 보급하여 국민들의 문학 향수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작가들에게 창작지원금 지급을 통해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1993년 들어 문학분야의 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도의 70%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문학작품창작 지원 사업은 그 지원효과가 적다고 판단되어 폐지되었다. 이 같은 판단의 배경에는 문예진흥사업의 지원 대상을 개

〈표 5〉 문학작품창작 지원 현황

(단위: 만원)

연도	1990	1991	1992	계
수혜인원	100	100	50	250
지원액	18,838	15,368	9,643	43,850



인창작활동 지원에서 과급효과가 큰 단체 지원으로 변경한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깔려 있었다(〈표 5〉 참조).

■ 문학작품연간선집편찬배포 사업

이 사업은 1990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문예진흥원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다. 해당 연도의 문예지에 발표된 우수한 문학작품을 장르별로 선정하여 그 선집을 발간 배포함으로써 문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독자들이 우수한 문학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지원분야는 시/시조, 소설, 희곡/수필, 평론, 동화/동시(아동문학) 등 5종이다. 지원액의 대부분은 해당 선집에 실린 작가들에게 게재료의 명목으로 돌아간다. 1996년 '문학의 해' 기념사업이 포함되어 지원액이 2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선집의 자체 발간에 대한 효율성의 문제가 대두됨과 아울러 선집의 대표성과 게재된 작품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결국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쪽으로 결론을 맺게 되었다. 물론 그 사이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민간 출판사와의 공동 발간 등의 문제를 검토하였으나, 이 경우 과중한 예산부담이 문제가 되었다. 1998년도 예산까지 책정되었으나 1997년을 마지막으로 이 사업은 종결되고, 이후 1999년에 이르러 '우수문학작품보급 지원' 사업으로 개편되었다(〈표 6〉 참조).

■ 우수문학작품보급 지원

'문학작품연간선집편찬배포 사업'이 1998년에 폐지

〈표 6〉 문학작품연간선집편찬배포 사업 현황

(단위 : 만원)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계
지원액	5,667	1,773	4,166	11,535	9,436	10,012	20,000	4,720	67,309

〈표 8〉 문학창작소재발굴조사 지원 현황

(단위 : 만원)

연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지원건수	3	5	6	6	4	8	0	5	37
지원액	1,900	2,283	2,900	2,840	1,598	3,660	0	2,000	17,181

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여 1999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지원사업이다. 애초에는 전국의 공공도서관 100개를 선정하여 200종 내외의 문학도서를 보급함으로써 순수문학의 창작 활성화와 출판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충족시키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다시 말해 작가, 출판사, 독자를 연계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만들겠다는 취지 아래서 생겨난 사업인 셈이다. 이후 지원액이 점차 늘어나 2002년에는 사업예산이 10억원을 넘어서게 되었으며,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분야의 우수 도서들도 선정하여 보급하게 되었다(〈표 7〉 참조).

〈표 7〉 우수문학작품보급 지원 현황

(단위 : 만원)

연도	1999	2000	2001	2002	계
지원액	10,372	41,252	43,493	104,792	199,909

■ 문학창작소재발굴조사 지원

1992년에 신설된 이 지원사업은 문학인들에게 창작소재 발굴작업을 돕고 체험적 시야를 넓혀 창작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외 방문 연구 조사 등의 기회를 제공했다. 창작역량이 뛰어난 작가를 선정하여 해외에서 참신한 문학소재를 발굴 조사하여 이를 작품화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 문학의 관심영역을 확장하고자 했던 이 사업은 시행 첫 해에는 총 3개 대상사업에 1,900만원을 지원하였지만, 중국이나 구소련 지역 및 남미 등 해외 한민족 밀집지역을 체류, 조사함으로써 향후 민족문학적 창작소재 발굴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평가받았으나, 1998년에 잠시 사업이 취소되었다가 이듬해인 1999년 재개되었으나 2000년 들어 완전 폐지되었다(〈표 8〉 참조).

■ 내고장문학인기념사업 지원

지역민들의 문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학 인구의 저변 확대를 꾀하기 위해 문학사적으로 명성을 남긴 내고장문학인들의 기념사업과 행사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1992년부터 시행되어 1995년에 폐지되었다(〈표 9〉 참조).

〈표 9〉 내고장문학인기념사업 지원 현황 (단위 : 만원)

연도	1992	1993	1994	1995	계
지원건수	4	7	10	11	32
지원액	1,050	1,300	1,750	1,800	5,900

■ 어문단체활동 지원

1993년부터 문화관광부의 예산 협의를 통해 시행된 어문단체활동 지원사업은 국어의 발전 및 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연구와 발간사업을 지원하여 독서의 생활화 정착 및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독서새물결운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어 및 국자의 올바른 연구 정립과 국민 언어생활의 순화를 위한 주요 어문단체들의 활동사업 중 국어언어문화 향상이나 어문연구 활성화를 꾀하는 학술 발표회 연구활동, 책자 발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표 10〉 참조). 2002년을 끝으로 사업 폐지.

■ 통일문학전집발간 지원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의 사업계획으로 문예진흥원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남북한의 대립적 구도를 해소할 수 있는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분단 이후 단절된 남북문학의 문학적 성과를 정리하여

〈표 10〉 어문단체활동 지원 현황

(단위 : 만원)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지원건수	4	3	3	4	6	10	11	12	14	12	79
지원액	5,664	6,455	6,173	5,800	29,221	23,000	30,000	29,704	30,000	20,000	186,017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남북한을 망라하여 분단 이후 현재까지 발표된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전집을 발간하는 사업이다. 수록 대상 분야는 시·소설·희곡·평론 부문이고, 남북한 작가 1,004명(남 746, 북 258)의 5,378편의 작품을 한 장의 CD-ROM에 수록하여 2003년도에 발간하게 되었는데, 북한 자료의 수집과 반입 과정에서 특수자료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특수자료 취급인가 기관·단체에 무료 배포될 계획이다. 사업 초기에는 기초자료 조사와 연구 및 공청회 등 발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느라고 지원액이 적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 2002년에는 4억원을 넘어서게 되었다(〈표 11〉 참조).

〈표 11〉 통일문학전집발간 지원 현황

(단위 : 만원)

연도	1999	2000	2001	2002	계
지원액	3,626	7,965	23,803	40,812	76,206

■ 신진문학가 지원

2000년도에 들어 새로 시행된 지원사업이다. 시행 첫 해에는 전해 10월 1일부터 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 개인 창작집(초판) 발간 실적이 있는 신진문학가를 그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 일반공모사업과 같은 형식을 취하게 되었으며, 분야는 시/시조, 소설, 평론, 희곡, 아동문학, 수필 등 문학의 전 장르를 포괄한다. 젊은 작가들의 창작역량을 강화해 중견작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갖는 지원사업이다(〈표 12〉 참조).

■ 대한민국문학상 지원

1976년에 제정된 반공문학상, 1977년에 제정된 흙의문학상, 1979년에 제정된 아동문학상을 통합하여 일원화하기 위해 1980년에 제정되어 문학분야의 종합적인



〈표 12〉 신진문학자 지원 현황

(단위: 만원)

연도	2000	2001	2002	계
지원건수	20	30	2	52
지원액	10,705	15,393	600	26,698

시상제도로 정착된 지원사업이다. 1980년 당시 흙의 문학상, 아동문학상, 자유문학상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었던 시상분야에 이듬해인 1981년에는 신인문학상분야가 추가되었고, 1983년에는 자유문학상과 흙의 문학상을 일반부문으로 통합하고 번역문학상을 신설, 1987년에는 평론문학상을 신설함으로써 현재의 일반부문과 평론부문, 아동문학부문, 번역부문, 신인부문 등 5개 부문으로 확정되었다. 심사 대상 작품은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 발표된 기성작가의 작품이나 작품집을 대상으로 예심과 본심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신인부문은 각 분야 공히 등단한 지 7년 이내의 개인 창작집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이 지원사업은 국내 문학계의 변화와 함께 당초 취지를 충분히 수행했다고 판단되어 1992년을 끝으로 시행을 중단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당시 150여 종에 이르는 각종 문학상의 난립으로 이상의 존속 의미가 더 이상 빛을 발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문학상의 번역부문은 한국 문학의 국제적 관심의 제고를 위한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1993년부터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한국문학번역상'이라는 이름의 별도의 시상제도로 대체되었다.

■ 기타 사업 지원

언급된 지원사업 이외에 민족문학대계 발간, 문예지 발간비 지원사업 등이 한시적으로 존재하기도 했다.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짧은 기간 시행되었던 민족문학대계발간 지원사업에는 총 6건, 1억 1,012만원의 지원금이, 문예지발간비 지원사업은 1977년부터 1987년까지 시행되었던 사업으로 이 기간 동안 총 41건, 3억 3,64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졌다. 또한 1991년 한 해 동

안만 시행되었던 문학창작소재개발 지원사업에는 총 99건, 2,200만원이 지급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예술평론활동 지원 등이 있으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마로니에 전국여성백일장, 청소년문예강좌 지원 등이 있다.

현황 분석을 통해 본 문학부문 지원의 개선점

이상과 같은 개괄적인 현황 분석을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문제점은 동시에 문예진흥원의 예술진흥 지원사업이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도 하겠다.

첫째, 문학분야 지원사업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온 '문학단체활동 지원'과 '문인창작집발간 지원'을 제외한다면, 지원사업의 잦은 시행과 폐지가 눈에 두드러진다. 가령, '문학창작소재조사 발굴 지원'이나 '내고장문학인기념사업 지원' 같은 사업은 10년이나 5년도 넘기지 못하고 폐지되었다. 제도의 잦은 변경은 문학 창작 기반의 안정적인 조성이라는 문예진흥원 지원사업의 애초 취지를 휘발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좀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계획, 수립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제도의 잦은 변경과 폐지라는 첫번째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한 문제이다. 지원사업의 잦은 시행과 폐지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과 선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 데에 상당한 정도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 혜택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갈등과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면, 어떤 사업이든 그 장기적인 지속은 위협받게 마련이다. 비슷비슷한 금액을 여러 단체나 개인들에게 '나눠먹기' 식으로 배분한다면, 문예진흥원 지원사업의 취지나 목적 자체에 어긋나는 일이 될 것이다. 투명하고도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통과한 유망한 작가들이나 단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